
사람사는 세상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사람사는세상
발행처 노무현재단 / 통권 76호

봉하마을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시범 개관

전시교육팀 김기도

그 여느 때보다 여름이 실감 나는 7월입니다. 봉하마을은 7월 1일부터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시관은 8월 21일까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 후 9월 1일 노무현 대통령 탄생 기념일에 맞춰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2층 규모의 전시관 1층에 자리한 전시관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생애를 돌아보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경험하는 곳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바랐던 사람사는세상과 시민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사람사는세상

02 봉하 소식 봉하마을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시범 개관
11 노란가게
12 민들레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연극으로 만들었어요
20 노무현장학생 노무현의 발자취를 따라간 봉하멤버십캠프 이야기
24 후원스토리 문턱이 닳도록 오고 가는 시민의 집을 꿈꿔요
28 노란가게
29 노무현 명연설 “운명을 바꿀 수 있나요?” 갈팡질팡하는 당신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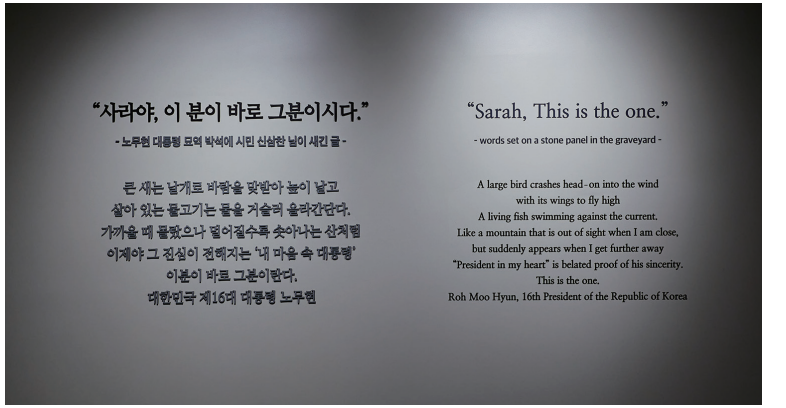
통권 76호 계간 사람사는세상 **발행인** 정세균 **편집인** 고재순 **등록번호** 마포 바00170 **등록일자** 2015년 4월 24일
발행일 2022년 8월 1일 **발행소** 노무현재단 **디자인** 더디앤씨 www.thednc.co.kr **인쇄** (주)예원프린팅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과 생태문화공원 전경

“사라야, 이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기념관 입구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이 글은 대통령 묘역 앞에 새겨진 1만 5천여 개의 박석 중 시민 신삼찬 님의 글입니다. 미래의 아이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이 글이 채택되었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노무현을 만나다

노무현 대통령의 출생을 다룬 1전시실을 지나, 2전시실부터 5전시실까지 연결된 복도는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노무현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도록 연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전시실부터 5전시실까지 연결된 현대사 복도

2전시실은 소년 노무현이 판사가 되기까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졸업앨범과 생활기록부 속 노무현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전시실 한편에는 마옥당을 테마로 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용했던 수험서와 사법시험 합격수기 '과정도 하나의 직업이었다'가 실린 고시계가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옥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고시공부를 했던 곳으로 노 대통령의 부모님이 개간한 단감 과수원 내에 있는 작은 토담집이었습니다. 현재 마옥당은 복원 중이며 오는 8월 중으로 시민분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뱀산에서 바라본 마옥당과 전시관

3전시실은 역사에 접속된 순간이라는 텍스트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잘나가는 조세 전문 변호사에서 인권 변호사, 시민 운동가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변호사의 인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증한 서류철을 살펴보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변호사 수사기록철(87005-노1수사기록)〉을 기증해 주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7~9월 노동자 대투쟁이 격렬하게 진행되던 당시, 노무현 변호사는 거제 대우조선 노사분규 관련 '故 이석규 장례식 방해'와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 금지 위반' 혐의로 부산구치소에 23일간 수감됩니다.

이때 노무현 변호사의 변호인단 구성에 앞장섰던 문재인 변호사가 작성한 것이 '87005-노1수사기록' 서류철입니다. 노무현 변호사의 석방을 결정했던 구속적부심 심사에는 당시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9명이 출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화 〈변호인〉의 마지막 장면에서 재현되기도 했습니다.

4전시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차분한 공간 속에서 노무현을 대표하는 명연설 12가지를 직접 골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바보 노무현 그리고 노사모

5, 6전시실은 바보 노무현과 정치인 최초 팬클럽 '노사모'가 만들어낸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극적인 드라마를 담았습니다. 5전시실 벽면엔 노무현 후보의 대선 홍보영상을 비롯하여 노사모 회원들의 활동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 자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사모의 힘과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 속에서 시민 권력으로 선출된 최초의 대통령 노무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5전시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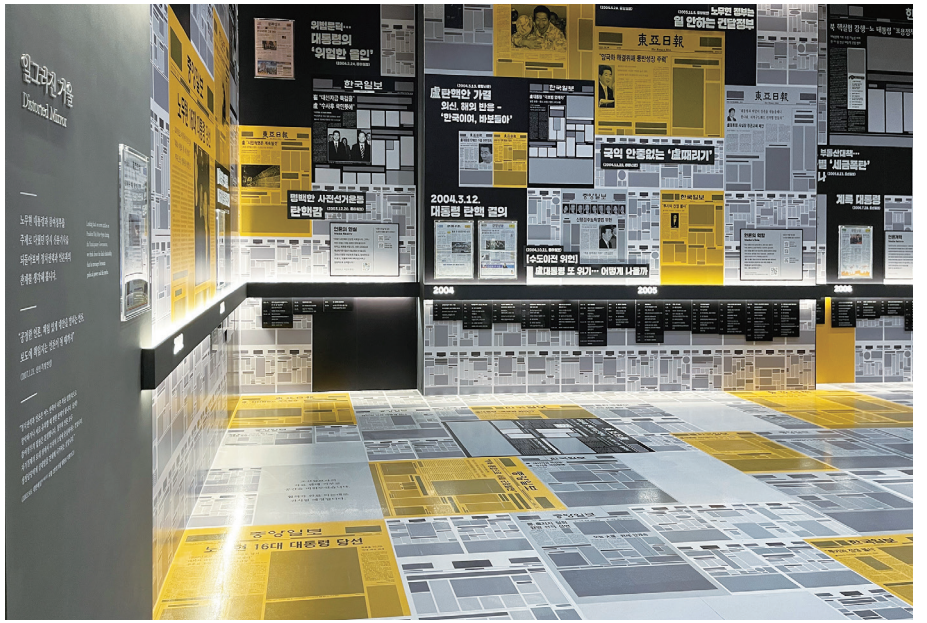
청와대 집무실에서 조형물을 살펴보는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2004.5.14.

5전시실 중앙에는 2002년 대선 당시 시민들이 노무현 후보에게 보낸 희망돼지 저금통을 대형 조형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로 조금 더 특별한 사연이 담긴 희망돼지를 따로 모아 청와대 집무실에 두었던 조형물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6전시실 미디어아트 '우람한 나무'



6전시실은 대통령 당선의 순간을 미디어아트로 표현했습니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은 우람한 나무로 형상화했습니다. 우람한 나무를 키워낸 시민들의 모습은 후원회원님께 받은 사진으로 구성했습니다. 계절에 따른 나무의 변화와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는 요소를 체험함으로써 감동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7전시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그리고 언론

7전시실은 참여정부를 3개의 주제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일그러진 거울'은 신문기사와 만평을 통해 참여정부를 비췄던 당시 언론이라는 거울을 간접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참여정부 할 일은 했습니다'에서는 관련 통계자료와 유물 및 기록물로 참여정부 6개 분야의 국정운영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참여정부를 말한다'에서는 참여정부 주요 인사들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참여정부와 관련된 다양한 논쟁적 사안들에 관한 후일담과 증언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8전시실 전경

봉하마을, 시민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퇴임 후 고향으로 돌아온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8전시실에서는 자신을 부르는 시민들의 요청에 기꺼이 밖으로 나와 소통했던 시민 노무현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관람객들이 '대통령님 나와주세요!'라고 외치면 2008년 시민으로서 우리 곁으로 돌아왔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장을 가득히 수놓은 노란 바람개비와 함께 전시관 방문 인증 사진 찍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지 마라

9, 10 전시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다루었습니다. 퇴임 후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시작된 전방위적 검찰 수사와 서거에 이르기까

10전시실



지의 과정을 영상으로 만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와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10전시실 한쪽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을 벽에 새겼습니다. 대통령의 서거를 마주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새하얀 복도가 이어집니다. 전시관을 둘러본 관람객이 느낀 감정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입니다. 복도 끝에는 관람객을 바라보며 환한 웃음과 함께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으로 전시가 마무리됩니다.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은 과거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기념관의 성격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지역공동체의 거점, 민주주의 정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특별전 및 문화행사, 지역 시민단체 연대 지원사업, 학교 및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단 직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전시관에서 혹시 마주치게 되시면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란가게 ROH GOODS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

주제로 민주주의를 티셔츠에 담았습니다.

<강물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노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13개의 풍선>
13주기 열세 번째 봄과 풍선의 나열 방식을 통한 원칙과 상식, 질서를 표현했습니다.

※ 봉하 전시관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민들레 : 노무현의 뜻을 품은 청년 꽃씨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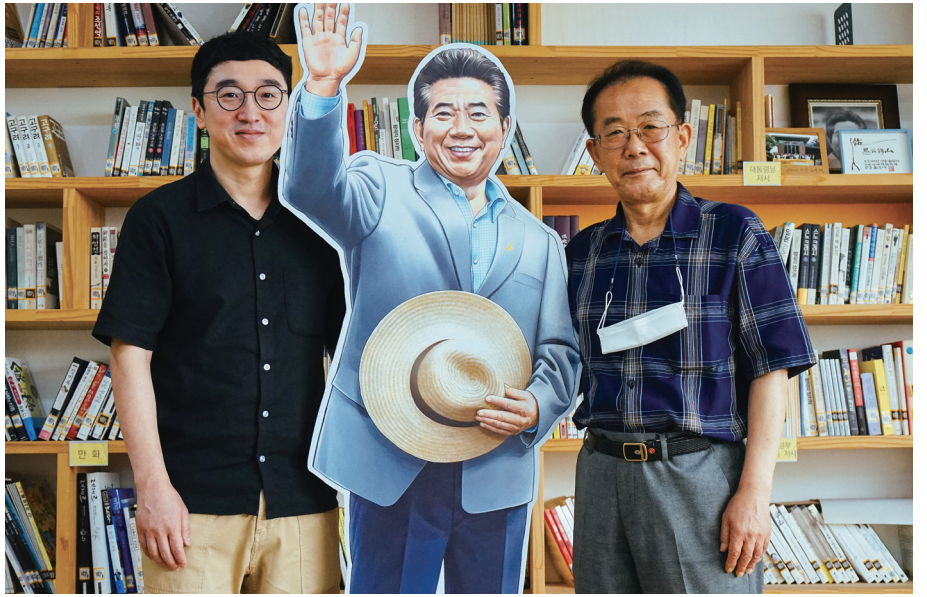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연극으로 만들었어요

연극 '초선의원' 제작자 오수현·오세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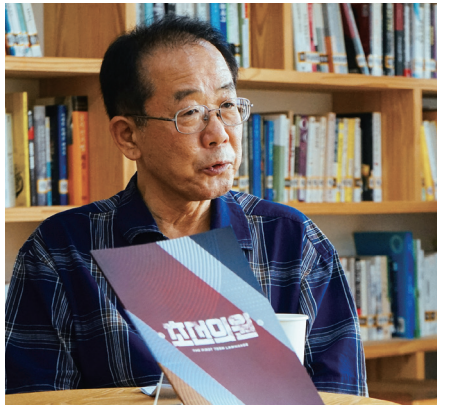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1988.7.8. 제142회 임시국회 첫 대정부질의에서

연극 '초선의원'을 만든 오수현 대표(우)와 오세혁 작가(좌)



사람 노무현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지난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 대학로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초선의원 시절을 그린 연극 '초선의원'이 공연됐습니다. 연극은 올림픽 열기로 뜨거웠던 1988년, 학생과 노동자를 돕던 노무현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되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담았습니다. 이번 민들레에서는 연극을 만든 극단 '웃는 고양이' 오수현 대표와 극본을 쓴 오세혁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독자님들을 위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오수현(이하 수현):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25년쯤 하다가 일찍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젊어서부터 연극을 좋아해 '웃는 고양이'라는 극단을 만들고, 연극 '초선의원'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세혁(이하 세혁): 저는 연극과 뮤지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네버엔딩플레이'라는 공연 제작사의 대표를 맡은 오세혁이라고 합니다. 오수현 대표의 제안을 받아 연극 '초선의원'을 함께 만들게 되었습니다.

연극 '초선의원'은 어떻게 만들게 되었나요?

세혁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후 그분에 관한 연극이 많이 나왔었어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지막 순간에 관한 연극이 대부분인 게 슬프더라고요. 언젠가 이분의 가장 빛났던 시절에 대한 연극을 만들어 사람들이 기억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게 초선의원 시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오수현 대표가 찾아왔어요.

수현 처음 연극을 기획할 때 주변 사람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어요. 주로 대통령이 되고 난 후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된 후의 이야기는 연극으로 올리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오세혁 작가에게 생각을 물어보자 초선의

원 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냐 하더라고요. 생각이 딱 맞은 거죠. 그 뒤는 일사천리였어요.

1988년, 5공 청문회가 우리나라 역사 처음으로 전 국민에게 TV로 생중계됐어요. 두 분은 그때의 기억이 있었을까요?

수현 5공 청문회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봤을 거예요. 시청률이 80%에 달할 만큼 관심이 높았고 저도 그 시청률에 일조했었죠. 그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가슴을 치면서 청문회를 봤어요. 6월 항쟁을 거치며 민주화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었지만, 역사가 쉽게 바뀌진 않겠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남아 있어요.

세혁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어요. 청문회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88올림픽만이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 있었죠. 신기한 건 그때 전 국민이 분노하고 우리 역사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는 올림픽을 보며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초선의원'을 준비하면서 올림픽을 보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심각하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초선의원' 공연 중 노무현 변호사를 재현한 '최수호 변호사'가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





'초선의원' 공연 중 문송면 군과 이야기를 나누는 초선의원 최수호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을 연극으로 만들며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세혁 처음 초선의원 이야기를 기획할 땐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청문회 스타' 이야기로 접근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행적을 공부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법으로 학생과 노동자를 지켜주던 노무현 변호사는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까지 꿈꾸게 되었을까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 노무현 변호사가 자신의 궁금증을 따라가는 과정을 이야기로 만들게 되었어요.

수현 초선의원 노무현은 국회 안에서 이합집산하고, 높은 당직을 차지하려 싸우는 일엔 관심이 없었어요. 현장에 찾아가 소외된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데 관심이 있었죠. 자신들끼리 가슴 치며 통곡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직접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던 초선의원 노무현의 모습을 풀어내는 게 연극의 핵심이라 생각했어요.

실제 무대에 오른 배우들은 어떤 방식으로 연극을 해석하고 공연을 준비했는지 궁금해요

세혁 연극이 과거의 이야기에서 끝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노동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배우들이 연극 속 이야기를 실제 자신들이 겪는 이야기로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배우들도 연극이 없을 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현 배우들 대부분이 80년대 후반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여러 사료를 보여주고, 읽게 하고, 그 당시 영상을 찾아 함께 보며 연습했어요. 지금의 노동 상황과 다른 그때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공부를 했죠. 배우들도 공연하며 조금씩 발전하고, 이 공연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보여줘야 할까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며 점점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세혁 노무현 대통령을 재연한 '최수호 의원' 역을 맡은 두 배우는 부담이 엄청나게 컸어요. 대통령이 된 사람을 연기하지 말고 40대 초반에 뜨겁게 좌충우돌했던 사람이 되라고 말해줬어요. 연기하는 순간만큼은 본인의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죠.



극에는 이석규 열사, 문송면 군 실제 역사 속 인물들의 이름이 나와요

세혁 노무현 변호사가 초선의원이 된 전후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건 위주로 담았어요. 변호사 시절엔 이석규 열사를, 국회의원이 된 후엔 문송면 군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방식으로요. 이분들의 실명을 쓴 건 오수현 대표의 의견이었어요. 노무현 변호사는 최수호 변호사로 바꾸는 등 다른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분들의 이름만큼은 그대로 쓰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수현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때와 이어져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가 17살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서울에 올라와 공장 노동자가 되고, 거기서 두 달 만에 수은 중독에 걸린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삶은 계속되고 있어요. 전동차가 다니는 스크린도어 안쪽에,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벨트에 들어간 건 모두 청년이었어요.

세혁 청년 노동자 한 분이 공연을 보러 왔는데, 이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 이렇게 발 벗고 나서주는 국회의원이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초선의원 노무현은 1980년대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그런 노무현 의원이 공연을 통해 2022년의 청년노동자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다시 동시대성을 갖게 된 거죠. 저에게 이번 연극을 만들며 가장 큰 의미로 다가온 말이었어요.

'초선의원'은 과거의 이야기지만 지금의 사람들에게도 와 닿았어요. 역사적 사실, 특히 비극적인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드는 일에 대해 두 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수현 저는 역사와 관련된 인물이나 사건은 연극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에요. 이전에 유관순 열사의 친구였던 남동순 할머니를 주제로 연극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남동순 할머니는 3.1운동에서 옥고를 치르다 석방돼 나와 여성 독립투사로 살고, 해방 후엔 전쟁고아를 돌보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유관순 열사의 이름은 알아도 남동순 할머니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역사 속 수많은 사람 중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연극으로 보여주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세혁 이번 연극을 만들며 명확하게 든 생각은 잊힌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건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석규 열사, 문송면 군, 노무현 대통령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은 점점 사료 속의 이름이 되겠죠.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있는 인물들을 지금 시대로 끌어오는 작업을 계속해보고 싶어요. 앞으로도 몇몇 인물을 더 소개할 계획이에요. 예를 들면 전태일·박종철 열사 같은 분들을 말이죠.

연극을 만들며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두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무엇일까요?

수현 저는 '사람사는세상'이란 말이 제일 좋죠.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세상이기도 하니까요. 사람사는세상은 어쩌면 가장 만들기 쉬운 세상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되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사람사는세상을 위해 올바른 길을 찾고, 움직이고 힘을 합친다면 점점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사람사는세상을 만드는 삶을 이어가려고요.

세혁 저는 '실패'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아요. 자서전 등 노무현 대통령의 글을 보면 계속 '실패했다'는 말이 나와요. 보통 사람이 자신이 실패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기 삶을 되돌아본 거죠. 그리고 실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방향을 바꿔 뜨겁게 달려간 거예요. 저도 살면서 자신에 대해 인정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삶을 되뇌면서 내 실패도 잘 인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올가을이면 서울 종로에 노무현시민센터가 문을 열어요. 이곳에서 '초선의원'도 공연될 예정인데, 독자님께 초대의 말을 해준다면?

수현 연극은 배우와 관객이 함께 호흡하는 장르에요. 서로 마주 보고 배우의 땀방울, 숨소리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죠. 그만큼 관객들이 배우의 연기를 더 빠르고 크게 흡수할 수 있어요. '초선의원' 속 최수호 변호사와 함께 호흡하고 그가 처한 상황을 함께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혁 맞아요. 연극은 직접 찾아와서 보기 때문에 관객과 배우가 서로 기운을 주기도 받기도 해요. 극장에서 어쩔 때는 신나게 웃고, 어쩔 때는 같이 울기도 하죠. 하루 24시간 중 2시간 정도만 함께 나눠도 나머지 일주일을 살아갈 기운이 생길 거예요. 저도 그래서 20년 동안 연극을 만들고 있고요. 좋은 기운을 나누기 위해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1988년 초선의원 노무현의
'제142회 임시국회 첫 대정부질의' 연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의 발자취를 따라간 봉하멤버십캠프 이야기

노무현장학생 13기 이시준



지난 5월 28일, 봉하에서 1박 2일에 걸쳐 13기 노무현장학생 봉하멤버십캠프가 열렸습니다. 이 캠프에 모인 38명의 장학생들은 마음과 가치를 연결하는 여러 활동은 물론 사회적 실천 역량을 튼튼하게 만드는 '소소 프로젝트' 기획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이시준 학생의 후기를 만나봅니다.

가정의 달이라 불리는 5월은 일 년 중 가장 마음이 분주한 때이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봉하멤버십캠프 날을 맞이했다. 오랜만에 찾아간 봉하마을은 긴 시간을 달려 찾아온 외지인을 환대하듯 곳곳에 따스함이 배어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장학생 동기들과 점심을 먹으며 짧은 인사를 나눴다.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될수록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소소프로젝트 기획 모임

봉하멤버십캠프의 '소소프로젝트 기획 모임'이 시작됐다. '인권'을 주제로 모인 우리 팀은 '오늘날 사회를 양분하는 인권 문제 역시 함께 비를 맞는 연대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생각을 나눴다. 이 문제의식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의 정의를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다.

> 내가 어릴 때 부산서 출발해서 김해에 오면 김해 정류장에서 늘 요 싸움하거든요. 사람들이 버스 뒤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더 탈 수 있는데 앞에 탁 버티고 서서 안 비켜 주는 경우도 많지요. '차장 오늘 어렵더라도 같이 타고 가야지.'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진보주의자에요.
> -〈진보의 미래〉

'비좁은 만원 버스에서도 승객을 같이 태우고 떠날 수 있는 따뜻함'을 제안한 것이다. 인권과 사회진보를 향한 고민은 앞으로 소소프로젝트의 활동을 통해 꾸준히 넓혀나갈 예정이다.

보람찬 첫날의 대미를 장식한 장학생의 밤은 봉하의 멋스러운 정경을 만끽하기에 충분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조용한 밤, 작은 불빛에 의지해 이야기꽃을 피웠던 모습은 마치 청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나는 조용히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 순간의 설렘을 오래도록 간직하고자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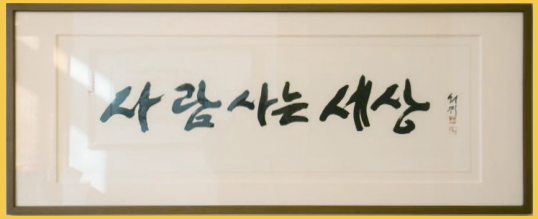
장학생의 밤

둘째 날은 아침 운동을 가볍게 마친 후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서 인사를 드리는 일정으로 시작됐다. 작은 비석에 새겨진 글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를 보며 시민의 정치참여를 강조한 대통령의 말을 되새겼다. 한 명의 유권자이자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사는세상'을 향한 작은 다짐을 했다.

묘역 참배 후에는 대통령의집과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을 관람했다. 대통령의집은 시민과 어울리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이었다.







사랑채 한쪽 벽에는 신영복 선생이 쓴 '사람사는세상' 액자가 보였다. 액자 바로 밑에는 손자가 그린 알 수 없는 낙서가 이질적으로 공존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불청객이 남긴 낙서인데 왜 지우지 않았을까 의아하게 여겼는데, 손자의 작품이라 뜻깊게 여겼다는 대통령의 뜻이 있어 남겨두었다는 설명을 듣고 대통령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은 청년에서 인권 변호사, 청문회 스타, 대통령, 시민으로 이어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생애를 담고 있었다. 인간 노무현의 흔적을 따라 걸으며 언제나 정의감에 불탔던 뜨거운 청년의 성장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봉하에서 보내는 꿈같은 이틀의 일정이 끝났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열차. 내 손에는 노란 금잔화 몇 송이가 들려 있었다. 지난 추도식 때 대통령 묘역 주변을 장식하고 남은 꽃을 선물로 받은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에서 있었던 멋진 추억이 그리울 때면 노란빛 희망의 금잔화를 바라보고자 한다.

문턱이 닳도록 오고 가는 시민의 집을 꿈꿔요

후원회원이자 직원이 그려가는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시민센터'

기획팀장 최인선



좋아하는 곳에서 일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재단에는 후원회원이자 직원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단에서 일하는 직원들 모두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를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만 특히나 후원회원으로서 재단을 응원해왔던 분들은 그 마음이 남다른데요.

길거리 캐스팅으로 처음 노무현시민학교 팀원이 된 후, 현재는 기획팀장까지 10년간 남다른 열정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번 후원 스토리는 노무현시민센터 건립 과정에서부터 개관까지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기획팀의 최인선 팀장을 만나봤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현재단 기획팀장 최인선입니다. 재단 후원 회원 스토리 주인공으로 인터뷰 요청이 와서 돌아보니, 어느새 재단과 인연을 맺은 지 벌써 10년이네요. 2012년 대선 이후, 한동안 깊은 상실과 허탈함을 품은 채였는데 친구가 재단에서 산행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어 우연히 참여하게 된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죠.

기획팀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재단을 사람으로 비유해 보자면 기획팀은 머리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노무현재단에는 정관과 각종 규정이 있고 행정안전부 소속 비영리법인으로서 또 기획재정부 지정 공익법인 등으로서 이행해야 하는 다양한 의무들이 있습니다. 기획팀은 이러한 의무사항을 놓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계획·실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사업부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재단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들보다 먼저 더 멀리 보는 일이 필요하기에 재단의 머리와 눈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소개하고 싶네요.

노무현시민센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시민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 준비하는 과정부터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았을 것 같은데요. 시민센터를 구상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점에 두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노무현 대통령 기념 공간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노무현정신'이라는 그 상징성은 남기고 기념하되 실제 그 공간은 오늘의 노무현과 내일의 노무현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일을 도모하고, 누구나 문턱이 닳도록 기꺼이 오고 싶은 시민참여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방향으로 생각을 모아갔습니다. 특히, 후원회원들이 평소에 '우리 재단, 우리 재단' 하셨거든요. 후원회원께는 우리 집이 생긴다는 그런 기대와 여망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도 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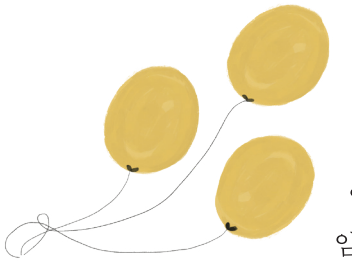
준비하는 과정에서 후원회원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도 있을까요?

돌아보면 후원회원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사업이었어요. 시민센터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국고 보조금이 30%, 재단 자부담이 70% 정도의 비율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렇다 보니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시민의 힘으로 모금이 이루어져 하나하나 지어올린 것이나 다름없어요.

재단에서 진행했던 시민센터 명칭 아이디어 공모 대상자 최오영 님은 상금을 다시 후원해 주기도 하셨고 재단이 센터를 본격적으로 건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재능기부를 해주시겠다는 전화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실제로 시민센터 BI를 디자인할 때 박한별 대표님도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센터 준비에 크게 도움을 주셨던 고마운 분 중 한 분입니다.

시민센터 건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해외 여러 기념관과 박물관을 답사할 때도 현지 글로벌 네트워크 회원들께서 가이드 등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정말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회원들이 함께 해 준 것이나 다름없네요. 반대로 아찔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순간들이 스치면서 딱 하나만 꼽자니 참 어렵네요. 부지를 마련할 때 경매를 했던 순간도 너무 떨렸고 저희가 낙찰받은 부지가 창덕궁 바로 옆이다 보니 유물이나 유적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요. 만약 그럴 경우 착공이 지연될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상황도 있



었어요. 다행히 너무나 운이 좋게도 그런 어려움을 잘 넘겨 무사히 일정에 맞춰 착공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운수 좋은 날들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엄청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땅이 아주 단단한 극경암의 암반지대였다는 거예요. 지하 공사가 필수였던 터라 발파를 통해서 빠르게 공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최대한 소음과 진동이 적은 방식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더 큰 불편함을 주민들께 안겨드릴 수는 없었기에 하나하나 바위를 깨고 빼내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어요. 이 때문에 공사 기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정말 아찔하면서도 안타까운 순간이었어요. 여러 변수에 의해 양치기 소년처럼 개관 일을 조금씩 미루게 되면서 힘을 보태고 응원해 주신 수많은 회원들께도 죄송한 마음이었죠.

팀장님은 후원회원으로서도 시민센터 건축을 위해 의미 있는 후원을 해주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후원을 해주셨나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된다고 믿고 있어요. 시민센터가 그 교두보가 되겠죠. 단순히 유형의 건물로서 갖는 의미보다 시민들의 학습, 활동, 문화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시민 간 생각을 연결하고 확산시키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서 특별한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재단 직원으로서 이런 의미 있는 공간을 준비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후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노무현의 서재에서 배를 깔고 누워 민주주의 관련 서적을 소리 내어 읽고 노무현 대통령을 알아나갈 수 있길 바란다는 최인선 팀장의 마음처럼 시민 누구에게나 편안한 공간, 깨어 있는 시민의 꿈이 문턱을 넘어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기적을 만드는 공간으로 노무현시민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조만간 완공될 시민센터에 시민의 꿈을 가진 지인들과 편하게 방문해 주세요.

노란가게 ROH GOODS



마음이 따뜻해지는
마그넷 속 공간

※ 봉하 전시관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나요?” 갈팡질팡하는 당신에게



2008년 8월 30일,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광장 자원봉사자들과의 만남에서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인간의 팔자는 그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라며 자리에 함께 한 유시민 장관의 팔자를 고쳐보자며 시민들께 제안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연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역사의 법칙은 인간이 만드는 것

그 모든 사회 역사에 역사가 이렇게 운행되어 온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는데 그 모든 법칙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 온 것이거든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역사엔 법칙이 있다.’ 근데 그 모든 법칙

은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 사람(유시민)의 사주팔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팔자는 그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 역사의 법칙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될지 나라의 운명도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나라의 운명을 만들기 위한 인간의 운명 또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죠.



진보는 장기투자

상대방이 죽 쑤는 것은 우리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쪽에 방심을 불러올 뿐이죠. 그건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실력을 쌓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제 강물 내가 강물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필연적으로 강물은 바다로 가죠. 근데 어느 강도 그 지점에서 보면 어디로 굽이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굽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저는 그 우리 역사에 있어서 진보라는 것도 장기 추세로서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진보한다. 또 그것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되어 나아갈 것이다. 저는 그것을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정권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머 바람이 돌거나 파도가 일어나거나 강물이 이렇게 휘어 내려가듯이. 그 매 시기에 일어나는 상황이고 현상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각, 시민의 의지죠. 결국은 궁극적인 해답은 시민 속에 있다.

결국 시민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시민이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정책을 가지고 이해관계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정책으로 사람을 선택하되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 정책을 실행할 의지가 사람인지, 혹시 거짓말은 아닌지, 실행할 의사는 있는지, 능력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들을 해나가는 이 능력을 통해서 매 시기 시기 정치적 선택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뿐이죠.

어떻든 역사의 대세는 우리가 가는 방향에 합체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QR코드 바로가기

〈노무현 명연설〉은 재단 유튜브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봉하쌀 나눔을 통해 아이들이 재단으로 보낸 그림 선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람사는세상을 만나보세요.



본 소식지는 노무현재단 후원회원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6 6층 **전화** 1688-0523
www.knowhow.or.kr